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 홈페이지 < 신앙의 대상 > 편 소개

인류역사 6천년만에 영생의 꿈 현실이 되다

승리제단의 신앙의 대상 - 이기신 하나님

승리제단은 이기신 하나님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마귀에게 패한 하나님으로서 무능한 하나님이므로 인류가 마귀에게 죽임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이기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마귀에게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는 참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과정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 해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영원 전부터 영원무궁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온 우주에 자재(自在)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육천 년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그 마귀가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 마귀를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자마자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마귀의 신이 들어와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나님은 남자가 되었고, 해와 하나님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이었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는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류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승리진경, 빛의 신이 어둠에 정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s://www.victor.or.kr/>

복보다 1장).

아담과 해와를 찾아 완성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혔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세 씨 중 한 분 하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인 인류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도하면서 당신의 자식인 인류를 살려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마귀의 세력이 워낙 강함으로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는 자식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 살아남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당신의 자식들을 살려야겠다는 장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몸을 입고 구세주로 출현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승리진경, 회복편 1장).

구세주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와 싸워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도로 찾는 일이 하

나남께서는 최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도로 찾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 분 남은 하나님마저도 마귀에게 멸함을 당하는 절박한 일이었습니다(승리진경, 회복 편 2장). 마귀가 하나님을 전멸시키는 데에는 육천 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먼저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아 놓고 씨줄 날줄로 쪼개서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 육천 년만 흐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전멸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천 년이 거의 다 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구세주를 배출하는 데 성공 하셨습니다. 그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된 대로 동방 땅 골 모퉁이 나라 한국에 백태선이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출현하시어 먼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해와 하나님을 회복하신 다음 똑같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담 하나님을 회복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

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한 하나님이요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을 이긴 존재로서 영생의 하나님이시며,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능을 도로 찾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신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

태초의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미완성의 하나님이요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멸함을 당하려야 당할 수 없는 영생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는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영생체로서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이 갖춰진 것입니다. 조희성 선생의 영과 육을 쓰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희성 선생의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승리진경, 백보좌집판 3:5).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기신 하나님인 조희성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 속의 마귀는 박살되어 없어집니다. 이기신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영생의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4> "마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마귀의 영은 인내심이 없는 고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허점인 고로 오래 참고 견딜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게 되는 것이다. 세상 어디서든 승자가 패자의 소유물을 다 갖는

것처럼 마귀의 지혜와 총명과 마귀의 모든 소유물을 다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귀를 지혜와 총명으로 이긴 것이 아니요, 오직 인내와 견딤으로 이겼던 것이다. 마귀를 점령하고 마귀의 계교를 다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승리제단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동학을 설립한 수운(水雲) 최제우 선생은 하느님을 만나려고 49일간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上帝)이 강령(降靈)했다고 한다. 그 하느님은 "두려워 말고 저어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중략)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게 하여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니 의심 말고 다시 의심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운이 "그러면 서학으로 서 가르치리오까?"라고 물으니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찾고 만나고 싶어했던 하느님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었음에도 그 하느님은 서학으로 가르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수운의 하나님

수운이 살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공하던 때로서 아시아의 맹주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함으로써 과학문명을 앞세운 서구 세력의 강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총칼을 등에 얹은 천주교가 들어와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천주교에 귀의하였으며, 조선 또한 정약응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는 등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시점이었다.

이때 수운도 천주교에 호기심을 느끼고 주유팔로(周遊八路)를 할 때에 예배당에 가보기도 하였지만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하느님과 서양의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엄연히 다름에도 쉽게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음을 깊이 느꼈다. 수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 혁혁한 공을 세운 7대조부 최진립 장군의 우국충정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인의 뛰어난 학자였던 근암 최옥의 아들로서 유학에 심취했던 학자로서 나라의 앞날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안부를 염려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이름을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제우(濟愚)로 고치고 하느님에게 그 방책을 찾자 기도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수운에게 강림한 상제는 천주교로서 백성들을 교화하지 말라 하니 수운에게 강령한 하느님은 천주교인들이 울부짖으며 찾는 그 하느님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도율 김용옥은 '율요천서 사건, 즉 금강산 율점사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운에게 어떤 책을 주면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다는 사건에서 그 책은 『천주실의』라고 주장하면서 수운이 그 책을 읽고 "기도하는 법에 관한 책"이라고 평하였던 것으로 보아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운이 찾은 하느님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왜 서학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을까?

각 종교의 하느님은 어떤 신인가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로서 각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 회교에서는 알라 등등 명칭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동일한 존재이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가르치는 하느님과 수운에게 강림한 하느님은 왜 다른 모습처럼 보일까? 그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와 성향에 따라 하느님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서구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형성된 아베라는 하느님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운은 한민족이 원시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느님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승리제단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천주교의 하느님, 수운의 하느님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드디어 나왔다! 새책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서로 조심하게 된다. 단결과 외로움의 지속으로 '우울증'이라는 마음 앓이도 겪게 된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오염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였고 이에 병든 지구가 스스로 정화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이러스를 통한 인구수 감축이다."라고 한다. 이제 좋은 물과 좋은 공기를 찾아 마시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듯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괴질 판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은 정신을 개벽하는 대전환을 요청한다(인내천 사상을 제창한 수운 최제우 선생이나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도 같은 말을 했다).

정신개벽의 물결은 곧 한류(韓流)다. 인류의 중심축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지구촌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무궁화! 무궁화는 곧 정신개벽의 주인공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학수고대했던 정신개

벽의 주인공은 참사람 즉 진인(眞人)으로 불리어 왔으며 또한 민간신앙에서는 정도령 또는 미륵불로 그리고 유럽에서는 극기승자(極己勝者) 등으로 불리어 왔다. 선지성현들이 고대하던 진인(眞人)이 되는 무궁화 하나가 20세기 후반에 한국 땅에서 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진인(眞人) 무궁화가 될 자질을 갖춘 씨앗이 세계 만국의 부모국이 되는 한반도 대지 위에 많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났지만, 일제강점기에 짓밟혀 꽃봉오리로 맺지 못하고 죽어간 수효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무궁화 재목들은 이어진 625

전쟁으로 젊은 나이에 무수히 죽어갔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하늘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무궁화 꽃 하나를 피우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늘이 키우고 길러낸 이 진인(眞人) 무궁화를 일컬어 "너는 이간자가 되었다.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는 한 송이의 무궁화로 개화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연단과정과 진정한 내적인 마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새책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는 하드커버와 컬러 사진이 수록된 고급 양장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보 및 대형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다.*

해방 후 마지막 道人들의 역사!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상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인내하고 견어낸 구도역정!

이 책을 읽고
당신도 완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 해도 한반도엔 수많은 도인(道人)들이 있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기적의 보배를 보아주었던 한민족의 정통 諸人들. 반면 일제강점기 전부터 급속히 행안도로 들어왔던 기독교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찾아들었으며 광고를 봐도 6.25전쟁 후 약속이나 한 듯 한국의 도예(陶器)은 끊어지고 諸人들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잊히게 되었다.

60년대 국내 최고와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백태선 선생의 종(宗)이 간사.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시작하여 최고와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흥하여 마음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키워낸 한 병의 보시 상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한다.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교 승리제단



이슬성신은 불경에서는 감로(甘露)라고 하기도 하고, 격암유록에서는 감로해인이라고도 하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의 증표이다. 이슬성신이 함께하는 승리제단은 인간이 세운 일반 종교가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이 설립한 종교이다.*